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6일 수요일 음 8월 6일 (13물)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7~28℃로 예상된다. 산지는 대체로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10%

고

산

1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21/28℃

모레

흐리고 비

22/28℃

월드뉴스

이란전쟁에 미군 기지·시설 수백 곳 피해

첫 공식 집계 특별보고서

미 국방부 감찰관실이 14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의 손실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집계한 특별보고서를 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요르단의 미군 기지 내 건물과 구조물 수백 곳이 파손·파괴됐다. F-15E 4대, KC-135 공중급유기 7대, AH-6 헬리콥터 4대, MQ-9 리퍼 드론 최소 30대 등 50대 이상의 미군 항공기도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SM-3, PAC-3 등 요격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재고도 심각하게 소모돼 개전 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지적됐다.

바레인 미 해군 거점기지 파괴로 디에고카르시아섬이 군수 거점이 되면서 재보급 주기도 14일에서 18일로 길어졌다.

미 국방부는 전쟁 비용을 334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복구 비용은 제외됐다. 중동 내 미국 외교시설 피해도 약 1억84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외교 공관 인력 최대 350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미 해군 MH-60R 시호크 헬리콥터.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신윤경
보정신의학과의원장

소문과 뉴스가 실어 나르는 것은 흔히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고, 심하면 악마화다. 다툼이 일면 사람은 저마다 옳고 선한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그른 쪽에 세우려는, 때로 자신을 피해자로, 상대를 가해자로 놓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도덕적 권위와 힘, 호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제 시비를 진실처럼 퍼뜨리고, 편이 모이고, 밀려난 이에게는 비난과 배제와 고립이 돌아간다. 이 다툼은 가정과 학교, 일터와 마을에서 되풀이되고, 커지면

가능한 사랑

국가나 민족의 분열과 전쟁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한복판을 위태롭게 산다.

비난에서 악마화까지는 몇 걸음 되지 않는다. 다투는 동안 상대의 맥락과 사연과 복잡성은 지워지고, 부분적 행위만 확대된다. 상대의 행위는 곧 그의 성격이 되고, 본성이 된다. 상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이기를 그치고 하나의 유형이 된다. 유형은 뻔하기에 물을 것이 없다. 문기를 그친 자리에서 괴물이 태어난다. 상대와 나 사이에 걸린 것이 클수록, 그가 거부할수록 내 두려움과 미움이 커진다. 두렵고 미울수록 상대는 더 사악하고 끔찍해진다. 괴물은 언제나 맞은편에서 목격된다. '오디세이아'의 외노박이 거인에게 이에게는 비난과 배제와 고립이 돌아간다. 이 다툼은 가정과 학교, 일터와 마을에서 되풀이되고, 커지면

괴물을 만드는 사나움은 대개 사랑의 결핍이 아니다. 사랑에는 핵이 있다. 몸이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기에, 마음도 몇 사람 곁에서만 깊어진다. 핵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안의 온기는 밖의 냉기가 되기 쉽고, '우리'라는 말은 어김없이 '그들'을 만든다. 차별과 혐오가 거기서 피어오른다. 사랑이 핵을 넘어 번져 가는가, 안으로 굳어 배타가 되는가—이는 그림자를 의식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림자를 의식한다는 것은 우위에 서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일이다. 그 어둠을—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할 때, 내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일이다. 이는 자아를 지움으로써가 아니라 자아가 여물어짐으로써 가능하다.

다툼 없는 관계는 없다. 지속은 충돌을 품고, 충돌을 통과하지 못하면 관계는 해체된다. 그 통과와 힘은 같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미움을, 너와 나의 모순을 한 마음에 담아 건디는 데서 온다. 정신분석은 이를 성숙이라 부른다.

우리 모두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지녔다. 빛과 그림자는 한 쌍이고 필연이다. 그림자는 내가 허용하지 않은 나다. '너도 나처럼, 나도 너처럼 그러하구나' 하는 인정이 상대를 나와 같은 자리에 세우고, 공존은 비로소 숨을 얻는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만큼만 그런 너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평등과 겸손 위에 공존이 서고, 사랑이 가능해진다.

사랑과 공존이 아니라면, 인간이 무엇일 수 있을까.

열린마당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시스템 도입



송명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과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영 악화 등의 위기 상황이 오기 전 선제적인 예방 정책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주도는 9월부터 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알람 모형 구축을 시범 추진 중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 상환 능력, 신용 건전성, 그리고 업종 밀집도 등의 종합 분석을 거쳐 A부터 F까지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위험 신호 감지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람톡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알람톡 후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에는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거쳐 솔루션 제공, 저금리 대출 및 필요시 폐업 지원까지, 단순 비용 지원만이 아닌 경영 개선이 가시화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더불어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을 모집하고 17명의 디지털튜터를 양성,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체가 원할 때 방문해 스마트기기 활용법, 온라인 플랫폼 업점 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 중이다. 올해 12월, 디지털 튜터 심화 과정 도입으로 내년엔 한층 고도화된 AI·디지털 전환도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AI·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대응으로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 개선,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회복과 자생력 강화, 스마트 전환 소상공인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까지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극 성수기 고(高)지대 갈증, '작은 물탱크'로



오태승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올해 여름 제주를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뜨거웠다. 관광객이 물터들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도내 수도물 사용량이 치솟았고, 그 여파는 고지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저지대에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씹으로 인해 고지대의 수압이 떨어지는 '고(高)지대 저수압' 현상이 발생했다.

올여름 민원 123건 중 고지대 저수압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 순 누수 17건, 관경 부족 3건, 기타 16건이었다. 원인은 특정 시간대 저지대 사용량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에 노후관 누수, 감압·경계밸

브 고장, 관경 부족까지 겹친 데 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대 분리 공급'에 나선다. 집단 민원지역 인근 공유지에 물탱크(간이 배수지)를 설치해 중산간 저지대 지역에 분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는 조천읍 신촌2소분류 조와로 5길로, 40가구가 거주하며 한 달 평균 750t의 물을 사용한다.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집단 민원지역으로 확대하고, 고장이 잦은 감압밸브는 조절지 시설로 대체한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국비사업도 확대해 유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고지대 주민이 매년 여름 수도물을 걱정해야 한다면 자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현장에서 검증한 해법을 하나씩 넓혀가는 것이 급수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SINCE 1988

www.cheilsa.co.kr

제일사 양복점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맞춤바지 무조건

3장 15만원

2장 12만원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상록회관)

신한은행

← 삼성혈 칼호텔 →

전농로 →

1중앙로

NAVER

제일사

검색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란?

에코방수 010-9086-8965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